

칼빈의 은혜론

김선권

(장로회신학대학교, 객원교수, 조직신학)

- I. 들어가는 말
- II. 은혜의 개념
- III.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 IV. 은혜와 윤리
- V. 나가는 말

[초록]

본 논문은 칼빈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개념이 실제로 그의 저술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를 강조했다. 칼빈의 은혜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것이다. 인간 편에서 성자에게서 출발하여 성부의 은혜에 이르며, 하나님 편에서 성부에게서 출발하여 성자를 통해 은혜가 주어진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아래 있게 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시작했다면 그 은혜를 완성한다. 인간 문화의 발전을 위한 은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지만, 구원하는 은혜는 택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다. 특별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활동을 한다. 하나님의 구속 은혜는 주권적 은혜로 확장된다. 신, 구약 구원의 길은 모두 은혜 언약에 근거한다. 언약의 실체인 교리, 믿음, 중보자, 하나님, 성령은 모두 동일하다. 실체는 같지만, 은혜를 전달하는 방식(이 땅의 혜택의 유무), 은혜의 분량(현현의 명확성의 차이), 은혜를 받는 대상(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과 결속된 사람은 언약적 책임을 가진다. 신자의 행위는 하나님과 인간의 의지적 협력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인 동시에 전적으로 믿는 자 자신의 행위이다. 은혜는 효과적이며 활동적이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이중 은혜이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선물로 돌려준다.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이웃을 받는다. 윤리는 은혜의 윤리이다.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은혜의 활동이며 은혜의 열매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순전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함이다.

키워드: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은혜 언약, 이중 은혜, 은혜의 윤리, 선물

논문투고일 2022.01.31. / 심사완료일 2022.03.03. / 게재확정일 2022.03.07.

1. 들어가는 말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백성)에 대한 값없는 사랑의 행위를 가리킨다.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 이러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수 없다.¹ 신약성경에서 은혜(*χάρις*)는 150회 이상 사용됐다. 이 중 복음서에서 11회 사용됐는데 대부분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반면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100회 이상 은혜(*χάρις*)를 사용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중심개념으로 차용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칭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² 성경적 은혜 개념은 하나님의 행위이며 그 행위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서 객관적으로 제시되었고 성령에 의해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의 교부들은 은혜를 죄인인 인간을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신적 능력으로 이해했다. “은혜의 박사”(doctor gratiae)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를 매우 중요한 신학적 개념으로 수용했다. 그는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에서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에 반대하여 원죄론을 주장하고 원죄에 의하여 인간은 죄의 속박 상태에 있으며, 이 점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주장했다. 죄인은 죄의 노예 가운데 있으며 은혜만이 죄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³ 아우구스티누스는 은혜가 공로에 따라 혹은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든 것과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협력한다는 것 모두를 거부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노예화된 의지를 은혜가 내적으로 치유하고 변혁하여 선을 행하게 한다. 즉, 은혜의 성령이 아니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다.⁴ 그러므로 신자에게 선행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⁵

1 H. G. Pöhlmann, *Abriss der Dogmatik*, 이신건 역, 『교의학』(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2), 373.

2 William Manson, “Grace in the New Testament”, in W. T. Whitley ed., *The Doctrine of Grace* (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2), 33-60.

3 Aurelius Augustine,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차준순 역, 『은혜론 4』(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25.

4 Augustine, 『은혜론 4』, 301.

5 “사람은 자신이 불의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즉 선으로써 악을 사면받았을 때 불의함으로부터 의로움으로 바뀌었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중세기를 거치면서 은혜는 덕의 개념과 결합한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칭의는 의의 주입으로, 은혜는 영혼의 본질에 거하는 “주입된 성질”(habitus infusus)로 보았다. 아퀴나스(T. Aquinas)는 은혜는 초자연적 성질의 주입에 의한 영혼의 성질이며 이 영혼의 성질이 선을 얻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⁶ 중세 후기 유명론은 신인협동설을 주장했다. 비엘(G. Biel)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구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이다.⁷ 점차 믿음은 행위와, 은혜는 공로와 결합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후자들이 강조됐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sola fide)과 함께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전면에 내세웠다. 루터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당시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믿음과 행위에 의해 의로워지고 은혜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에 반하여 루터는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고 여겨지고,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다. 루터에게 오직 은혜는 구원의 모든 핵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그러나 리처드 멀러가 말한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의 교리를 붙들었지만 어떤 종교개혁자도 은혜에 관한 단독 논문을 저술하지는 않았다.⁹ 은혜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신학 저술 전반에 흡수됐으며, 다른 다양한 신학적 주제들과 결합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종교개혁자 칼빈(Jean Calvin)의 은혜론에 관한 것이다. 칼빈의 은혜론 혹은 은혜 개념은 그 자체로 된 연구는 거의 없다. 슈와지(E. Choisy)가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은혜가 지속적으로 그와 함께하고 또한 은혜에 기대어야 한다.” Augustine, 『은혜론 4』, 240.

6 Thomas Aquinas, *Aquinas on Nature and Grace: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a*, 손은실·박형국 역, 『신학대전: 자연과 은혜에 관한 주요 문제들』(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222.

7 Pöhlmann, 『교의학』, 377.

8 John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송일 역, 『바울과 선물』(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02.

9 Richard Muller, *The Divine Essence and Attributes*, 김용훈 역,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914.

칼빈의 은혜 개념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했지만,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간략히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¹⁰ 최근 빌링스(T. D. Billings)가 밀뱅크의 선물 신학과 칼빈의 은혜 신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썼지만, 은혜 개념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다.¹¹ 칼빈의 은혜론 자체에 대한 국내 연구는 없다.¹²

본 논문은 은혜의 개념을 다루며 시작한다. 은혜는 칼빈 신학 전체에 나타나고 강조되는 주제이다. 은혜의 개념을 연구할 때, 칼빈이 실제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어떤 신학적 주제에서 이를 강조했는지를 연구한다(II). 다음으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는 은혜의 두 측면을 다룬다. 일반 은혜는 일반 은혜론으로 후대 개혁신학에서 발전되는 주제였는데, 칼빈은 이 주제의 기초를 확립했다. 특별 은혜는 특별 계시의 문제와 은혜 언약을 주제로 다룬다(III). 마지막으로 은혜와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 칼빈에게 윤리는 은혜의 윤리로서 윤리의 동력을 은혜에서 찾는다. 오직 은혜를 내세우는 칼빈이 그의 신학에서 어떻게 윤리를 더 강화하는지를 다룬다(IV).

10 Choisy, "Calvin's Conception of Grace", in *The Doctrine of Grace*, 228-234.

11 빌링스는 밀뱅크의 선물 신학과 칼빈의 은혜 신학의 공통점을 드러내고 그들 사이의 차이를 제시한다. 둘 사이의 공통점은 밀뱅크나 칼빈 모두 "은혜를 받는 것"과 "자기 증여와 사랑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삶"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신학자 모두 인간 본성의 성취를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선물이 관계와 일치한다는 밀뱅크와는 달리 칼빈은 이중 은혜는 구원의 수용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더 명확히 연결한다. 더욱이 밀뱅크는 은혜를 "일반적 증여"와 "상호적 교환" 사이의 차이를 강조했다면, 칼빈은 은혜를 일방적인 혹은 상호적인 선물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그러한 단순한 대조로 포착할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의 구원 관계에 대한 풍부한 성경적, 교부적 가르침이 있음을 강조한다. J. Todd Billings, "John Milbank's Theology of the Gift and Calvin's Theology of Grace: A Critical Comparison", *Modern Theology* 21/1(2005), 87-105. J. Todd Billings,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송용원 역,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서울: 이레서원, 2021).

12 송용원의 논문 "칼뱅의 선물 사상에 대한 고찰"은 선물 신학을 다루지만, 이 주제와 연관된 유일한 연구이다. 송용원은 칼빈의 선물 구조는 "호혜적 선물 구조"를 넘어서는 "활성화된 선물 구조"임을 밝힌다. 인간의 타락은 선물의 왜곡과 부패를 가져왔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선물을 받은 갱신된 인간은 은혜의 동력에 의해 감미로운 자발성으로 교회와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그 선물을 사용한다. 송용원, "칼뱅의 선물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15권(2020), 209-237.

II. 은혜의 개념

칼빈의 은혜 개념은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기독교 강요』와 그의 『성경 주석』, 『설교』 등에서 은혜는 다양한 용례를 가지고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칼빈의 은혜 개념이 원칙적으로 구원론적 용어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는 것인데¹³,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¹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¹⁵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다.”¹⁶ 칼빈이 은혜를 강조한 이유는 은혜와 공로를 분리하고 후자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모든 성도는 그들의 삶이나 죽음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다.”¹⁷ 은혜에 공로가 조금이라도 결합하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한다. 이 점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의의 효력이며 구원의 동력이라고 천명했다.¹⁸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공로로 인정받고자 하는 행위는 의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의에서 배제된다.¹⁹

그렇다면 사람은 구원하는 은혜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참여한다.²⁰ 칼빈은 은혜론과 칭의론을 결합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은혜받기를 힘쓰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칼빈은 은혜를 받는 자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

13 Jean Calvin,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2,9,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이하 칼빈 주석을 인용시 성경책 명과 장 절만 표기함.

14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16.

15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6,23.

16 Calvin,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6,2.

17 Calvin,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4 vols. (Paris: Vrin, 1957-1963), III. v. 4. 이하 『기독교 강요』를 인용시 IRC로 표기함.

18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3,24.

19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3,21.

20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3,30.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다.²¹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은혜가 전부라면, 행위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는 원천적으로 봉쇄된다.”²²

게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칭의도 은혜의 역사에 근거한다.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칭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은혜가 칭의의 머리이며 근원이다.²³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임되어야 한다.”²⁴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믿음을 준비시키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²⁵ 칭의론과 은혜론을 결합하는 칼빈의 신학적 토대는 죄론이다. 모든 인간은 죄에 오염된 상태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의로움을 자신 안에서 찾을 수 없다.²⁶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칼빈은 믿음 자체를 공로를 지닌 행위로 여기는 것도 거부했다. 공로가 배제된 믿음만이 은혜를 은혜로 받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만 하게 되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에 값없이 거저 참여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이다. 하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진 하나의 덕이나 어떤 자질로서(une vertu ou quelque qualité infuse)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정결함을 받는 통로가 될 뿐이다.”²⁷

니저(M. Neeser)가 주장한 것처럼, 은혜의 주제로 들어가는 것 없이 칼빈이

21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28. Calvin,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6,2.

22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4,16.

23 박재은,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폼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갱신과 부흥』 제20권(2017), 69.

24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17.

25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9,30.

26 Calvin, *Commentaire sur les Actes des Apôtres* 15,6.

27 Calvin, *Commentaire sur l'Acte des Apôtres* 15,6.

말하는 믿음의 주제를 다룰 수 없고, 믿음의 주제에 들어가는 것 없이 은혜의 주제를 다룰 수 없다. 칼빈에게 믿음은 은혜의 본질적 현현이며 은혜 안에서만 믿음은 지탱된다.²⁸ 칭의는 의의 주입이 아닌, 의의 전가이다.²⁹ 스콜라학자들은 은혜를 정의할 때, 은혜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주입된 성질”이라고 주장했는데, 칼빈은 이를 반대했다.³⁰ 믿음은 자신의 행위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존을 비어 있고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다. 칼빈은 이 점에서 믿음이 그 어떤 상도 받을 수 없는 “수동적인 일”(œuvre passive)이라 표현했다.³¹ 칼빈에게 은혜와 믿음은 밀접하게 결합하여 나타나지만, 은혜는 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믿음에 앞서며 믿음은 인식론적으로 은혜에 앞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³² 은혜가 믿음을 앞서지만, 믿음은 은혜를 파악하게 한다.

칼빈의 은혜론은 구원론적이며 동시에 삼위일체론적이다.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며 구원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다. 은혜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다. 먼저는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시작된다. 성부 하나님이 은혜의 원천이며 근원이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하심 곧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³³ 성부의 은혜는 그의 사랑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이요 선택의 실현이다. 칼빈에 따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³⁴ 하지만 택하심의 은혜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사람 자신의 조건에 의해 주어지지도 않는다.

“일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은 단지 어떤 자들이 자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28 Maurice Neeser, *Le Dieu de Calvin d'après 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Neuchatel: Université de Neuchatel, 1956), 116.

29 Calvin, *Commentaire sur les Actes des Apôtres* 13,39.

30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15.

31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29.

32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10.

33 Calvin,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2,9.

34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7:8,28.

자들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택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의 택하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따라 된 것임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³⁵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값없이 은혜로 사람들을 택하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택하지 않고자 하시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택하고자 하시는 자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 속에서 자기로 하여금 반드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³⁶

칼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에 있다는 사실은 한편에서 그 은혜를 수용하고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며, 신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³⁷ 성부의 은혜는 구원하는 은혜일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복의 원천이다.³⁸

다음으로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은혜의 확실한 보증(un gage certain de la grâce de Dieu)이다.³⁹ 성자는 성부의 은혜의 내용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탁월한 예이다.”⁴⁰ 그리스도는 성부가 주시는 은혜를 제공하는 도구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것들은 단지 그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로 또는 수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35 Jean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29.

36 Jean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9,11.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견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거기에는 오직 사망만을 초래할 뿐인 사람의 공로가 끼여들 여지가 없다.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자격도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미리 내다보시고서 사람들을 택하기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신다는 교리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Jean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9,11.

37 Calvin, *IRC* II. iii. 10-11.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38.

38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7.

39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2.

40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41.

게 흘러가게 하고자 주신 것이다.”⁴¹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참에서 건져 내시기 위하여 그의 선하심 또는 사랑을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의미한다.”⁴²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와 타락 때문에 생긴 아버지와의 단절을 회복하는 데서 나타난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이 인간에게 내려졌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주어져 회복된다. 아담은 우리를 그의 파멸로 끌어들이 자신과 함께 우리를 파멸시켰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으로 회복시키신다.”⁴³ 타락한 본성이 지닌 악을 고치는 치료제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이다.⁴⁴ 더 나아가서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란 하나님이 그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본성 자체로 아들이셨지만 신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에 의해 자녀가 된다.⁴⁵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의 죽으심, 부활, 하나님 우편 통치의 선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복음의 수용이 은혜인 것이다.

성부의 은혜는 성자의 순종 사역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부에게서 출발하여(원인) 성자를(결과) 통해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 편에서는 성자에게서(결과) 출발하여 성부(원인)의 은혜에 이른다. 즉, 중보자의 은혜를 통해서 성부의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주체이다. 칼빈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와 신자를 연결하는 끈과 같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⁴⁶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가리켜 칼빈은 성령의 은혜라 부른다. 성령의 은혜는 사람들을

41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16.

42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15.

43 Calvin, *IRC* II. i. 6.

44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3,4.

45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20,18.

46 Calvin, *Commentaire sur la deuxième épître aux Corinthiens* 13,13.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실제적 효력이다.⁴⁷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며, 그 아래 있게 하며, 그를 소유하게 한다.⁴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성령의 은혜는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 복음 선포의 외적 음성이 성령의 활동에 의해 내적으로 성도의 마음에 효과를 준다. 성령의 비밀스러운 은혜가 복음 선포라는 말씀에 생명을 붙여넣어, 사람들의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 복음을 수용하게 만든다.⁴⁹

성령은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 안에서 현재화, 현실화한다. 성령은 믿음을 주고⁵⁰, 중생시키고⁵¹,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한다.⁵² 성령의 은혜란 결국 믿음을 통해 하늘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사람은 영혼의 복된 생활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생겨난다.”⁵³ 믿는 자에게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가치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선물에서 비롯된다.⁵⁴

성령의 은혜는 새롭게 하는 은혜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본성이 새롭게 됨으로써 순전하고 올바른 자로 세워진다.⁵⁵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다. 의인과 죄인이라는 이중 상태는 한편에서 신자가 일생 죄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을,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로 함을 나타낸다. 칼빈은 은혜를 세분하여 “작동 은혜”(la grace operante)와 “협력 은혜”(la grace cooperante)의 방식으로 구별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이런 구별은 인간 본성을 따라, 어느 정도 선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⁵⁶

47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45.

48 Calvin, *IRC* III. i. 3.

49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1,43.

50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6,65.

51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3,5.

52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7,37.

53 Calvin, *IRC* II. ii. 12.

54 Barclay, 『바울과 선물』, 231.

55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4,10.

56 Calvin, *IRC* II. ii. 6. 중세에 사용된 작동 은혜와 협력 은혜에 대해서 맥그래스는 전자를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됨”으로, 후자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질 만하게 됨”이라고 하였다. Alistair McGrath,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구원을 주시는 것이 은혜요, 이 구원의 길에서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온갖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도 은혜이다.⁵⁷ 은혜는 자신의 능력을 새롭게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지속하여 그 은혜 안에 항상 있게 하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은혜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⁵⁸ 곧 은혜는 앞서서 역사하여 은혜의 삶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후속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이유에서 신자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⁵⁹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전혀 중단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갑자기 중단하실 것이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자 처지이기 때문이다.”⁶⁰ 이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다.⁶¹

칼빈에서 은혜는 무매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은혜의 매개적 수단을 두셨다. 당시 로마교회는 은혜의 수단을 도구가 아닌, 원인으로 보았던 반면 칼빈에게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은 은혜의 원인이 아닌 수단이었다. 인간 편에서 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다. 칼빈에게 은혜의 수단은 교회요, 말씀이요, 성례전이다. 교회를 통해서 죄용서의 은혜를 받는다. “사도신경의 순서에 의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죄에 대한 계속적인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배운다. 말하자면 일단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죄 용서가 덧붙여지기 때문이다.”⁶²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보고이다.

of Justification, 한성진 역, 『하나님의 칭의론』(서울: CLC, 2008), 189.

57 Calvin,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7.

58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30.

59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4,4.

60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5,9.

61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7,38.

62 Calvin, *IRC* IV. i. 27.

그 보고가 닫혀 있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는다.⁶³ 성례전은 공로가 아닌, 은혜가 주어짐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증언이다. “성례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례전을 자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였고 성령의 비밀한 은혜를 통해서 택한 자들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신다.”⁶⁴

마침내 칼빈은 은혜의 목적을 적시한다. 먼저는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여기에까지 이끌어 오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얻은 은혜가 무엇이었던지 그것을 교회의 공통적인 유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맡겨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⁶⁵ “교회의 각 지체는 자신 안에 있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 공적으로 덕을 세울 책임이 있다.”⁶⁶ 이 점에서 교회의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다. 구원으로서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직분으로서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⁶⁷ 사역자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시고 또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직분자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을 교회에 나눠 주신다.⁶⁸ 하나님 은혜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우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무상으로, 공로 없이 구원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다.⁶⁹

III.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1. 일반 은혜

⁶³ Calvin, *IRC* III. ii. 6

⁶⁴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4,11.

⁶⁵ Calvin, *IRC* III. vii. 5.

⁶⁶ Calvin, *IRC* IV. i. 12.

⁶⁷ Calvin, *IRC* IV. iii. 4.

⁶⁸ Calvin, *IRC* IV. iii. 2.

⁶⁹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Jean* 8,11.

칼빈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la grace generale de Dieu)란 말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아담의 타락 후 최고선을 빼앗긴 인간 본성에 남겨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기독교인에게나 비기독교인에게나 공통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이성이 우리의 본성에 고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짐승이 무생물과 달리 감각을 지닌 것처럼 이성은 우리를 짐승과 구분시켜 준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보나 천치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 결함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grâce generale de Dieu)를 흐리게 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예리함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판단력이 탁월하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술을 쉽게 배운다. 이러한 다양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데, 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심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을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사람을 거치는 하지만 그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매여있지 않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grâce speciale de Dieu)를 공통적인 본성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⁷⁰

인용문에서 칼빈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뿐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언급한다. 하지만 여기서 특별한 은혜란 죄인을 구원하는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차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서도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이 부여된 상태를 가리킨다. 두메르그에 따르면 칼빈의 일반 은혜는 선인과 악인 사이를 구별하진 않지만, 개인 간은 구별하다. 즉 일반 은혜 안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능력이 주어진다. 칼빈이 일반 은혜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락한 인간 안에 여전히 남겨진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물이라는 것을

⁷⁰ Calvin, *IRC* II. ii. 17.

⁷¹ Emile Doumergue, *Jean Calvin: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 (Lausanne: Georges Bride & Cie Editeurs, 1910), 50.

강조하기 위함이다. 인간 자신의 것이라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칼빈의 일반 은혜론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지게 된다. 일반 은혜는 자연적 은혜들이 죄에 의해 완전히 지워지고 난 후 새롭게 주어진 은혜인가? 아니면 죄에 의해 지워졌지만, 그중에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은혜인가?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인간의 본성이 최고선을 상실한 후에도, 그 본성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남겨 두셨는지를 교훈 받아야 한다.”⁷²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비록 중생의 영은 박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존중 받아야 할 은혜들을 가지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탁월한 은사가 얼마나 많이 전 인류에게 뿌려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가!”⁷³ 두 인용문에 의하면, 칼빈은 두 가지 모두를 주장한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일반 은혜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지속적으로 이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일반 은혜가 일반 계시를 가능하게 한다. 칼빈에게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행위이다.⁷⁴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다. 하나님은 한편에서 인간 안에서, 다른 한편에서 인간 밖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인간 영혼 안에는 “신성에 대한 감각”(sentiment de Dieu)이 심겨져 있다.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적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예증하기 위해서 칼빈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종교 없는 나라, 도시, 가정이 없었다며 “종교의 보편성”을 언급했다.⁷⁵ 르세르프(A. Lecerf)는 일반 은혜가 타락한 인간에게 종교적 성향을 보존했다고 주장한다.⁷⁶

인간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밖, 창조 세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후로 창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된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의 너무나 아름답고 섬세한 이 건물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는 모든 그의 사역 위에 그의 영광의 특징들을 새기셨

⁷² Calvin, *IRC* II. ii. 15.

⁷³ Calvin, *Commentaire sur Genèse* 4,20.

⁷⁴ Choisy, “Calvin’s Conception of Grace”, 228.

⁷⁵ Calvin, *IRC* I. iii. 1.

⁷⁶ Auguste Lecerf, *Introduction à la dogmatique réformée* (Aix-en-Provence: Edition Kerygma, 1998), 115.

다.”⁷⁷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을 알만한 것을 분명하고 충분히 계시하셨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은 눈이 멀어 일반 계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⁷⁸ 인간 안에서 주관적 계시와 인간 밖에서의 객관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나타났지만, 타락한 인간은 일반 계시에 의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불완전한 인식을 하게 되며 게다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일절 얻지 못한다. 칼빈에게서 일반 계시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핑계와 변명을 제거하며 둘째,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로 안내하는 역할로서 존재한다.

둘째,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죄론과 관계한다. 칼빈은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이 점에서 칼빈의 인간론은 죄와 관련해서 철저한 비관주의적 관점을 담고 있다.⁷⁹ 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파괴력이 인간 안에서 그대로 작동하는 것을 막으신다. 이 점에서 일반 은혜가 존재한다. 만약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통해 나타나는 일반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 이성의 능력은 상실하여 정신적 수준에서 저능아와 백치 수준으로 전락했을 것이며 모든 인간은 짐승과 같은 야만적 존재로 몰락했을 것이다.⁸⁰ 세상에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이는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인간 정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경우이다.⁸¹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써 사람의 본성을 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지만, 외적으로 제지하고 억제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말한 보편적인 타락 가운데서 본성의 부패성을 개선할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본성 안에 억류하고 제압할 목적으로 얼마간 주어졌다는 것이다.”⁸² 일반 은혜는 인간 영혼과 마음 안에서 역사하지만, 죄의 싹을 전적으로 제거하거나, 비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차원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죄의 힘을 억제하여 개인과

77 Calvin, *IRC* I. v. 10.

78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20.

79 Carl-A. Keller, *Calvin mystique* (Genève: Labor et fides, 2001), 83.

80 Leцерf, *Introduction à la dogmatique réformée*, 115.

81 Werner Krusche,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정일권 역, 『칼빈의 성령론』(서울: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7), 158.

82 Calvin, *IRC* II. iii. 3.

공동체의 참담한 결과를 막을 뿐이다.⁸³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반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파괴했을 것이다.”⁸⁴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도움들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⁸⁵ 하나님은 일반 은혜로써 죄를 억제하며, 그로 인해 세상을 보존하신다.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창조 세계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신적 섭리의 주제와 연결된다. “주님은 그의 섭리를 통해 우리 본성의 부패성을 억제하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는 않는다.”⁸⁶ 이렇듯 칼빈은 세상(자연)에서 발견되는 모든 질서는 하나님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셋째,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기독교와 세상(문화)의 이원론적 구별에 반대한다. 칼빈은 세상을 일반 은혜의 대상으로 여겼다. 중세 영성가들은 속세에서 분리된 곳에서 하나님과의 합일을 추구했다. 재세례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악한 곳이며 악마의 영역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⁸⁷ 하지만 칼빈은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았다. 세상과 따로 분리된 수녀원과 수도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막스 베버가 칼빈주의를 “세계내적 금욕주의”라 칭했던 것은 일반 은혜론의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다. 칼빈에게 은혜란 종교적 삶으로서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경험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에게 모든 삶은 믿음의 표현이며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명은 성직과 같은 특별한 영역의 자리로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삶의 자리로 확장된다.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 구별을 주장하는 로마교회는 국가를 포함하는 세상이 교회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반면, 칼빈주의 일반 은혜론은 시민과 정치 사회의 독립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국가, 사회, 정치, 과학은

83 Choisy, “Calvin’s Conception of Grace”, 229.

84 Calvin, *IRC* II. ii. 17.

85 Calvin, *Sermon 28e Job, CO* 34, 504.

86 Calvin, *IRC* II. ii. 3.

87 Henry H. 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용산·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74. 마이클 호튼은 많은 선교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를 얻고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하나님과 사탄, 빛과 어둠, 선과 악 사이의 우주적 이원론과 그와 관계한 영적 도해와 같은 생각을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악의 세력을 우주의 참된 통치자가 제어한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Michael Horton,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20-21.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한 영역이 되지 않는다. 반면 이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선물(특별 은혜)인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립적이다. 칼빈은 영적 통치를 위에 두어 정치적 통치를 지배하는 것에 반대했다. 두 영역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동의 일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⁸⁸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의 활동을 격려한다. 칼빈은 공예와 학예와 같은 기술을 배우게 하는 능력을 이성의 능력으로 보면서, 모든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심겨진 이성의 어떤 보편적 이해력이 있음을 주장한다.⁸⁹ 이를 가리켜 방델(F. Wendel)은 모든 (자연적) 빛으로부터 인간을 박탈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주장한다.⁹⁰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과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기여하는 발명은 결코 멸시해서는 안 될,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⁹¹ 가정, 사회, 정치, 과학,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한다. 시민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다. 비신자들 가운데서 발견되는 선이나 덕을 부정하고 비하하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로서 인정해야 한다.⁹²

넷째,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선택된 자에게만 제한되는 특별 은혜가 주어지기 위한 외적 토대를 세운다. 창조된 세상이 일반 은혜에 의해 보존되지 못하며 사람들의 선과 덕이 칭송받지 못한다면,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파괴될 것이다. 일반 은혜가 없다면 교회와 신자들의 삶 역시 존재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은 한편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차별 없이 일반 은혜를 주시고 다른 한편에서 신자들을 보호하고 구원 사역의 외적 토대를 위해 일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⁹³

⁸⁸ Choisy, “Calvin’s Conception of Grace”, 230.

⁸⁹ Calvin, *IRC* II. ii. 13.

⁹⁰ François Wendel,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l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144.

⁹¹ Calvin, *Commentaire sur Genèse* 4,20.

⁹² Choisy, “Calvin’s Conception of Grace”, 230.

일반 은혜가 구원 사역을 위한 외적 토대를 세우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성령의 은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분배되며, 그것의 목적은 인류의 “공동선”(le bien commun)이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인류의 공동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기에 그리스도인도 공동의 유익을 추구해야 한다.⁹⁴ 칼빈의 일반 은혜론은 인간의 철저한 부패성을 내세우면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선과 덕의 도덕적 차원과 학문과 과학과 기술의 영역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음을 인정한다. 그로 인해 은혜의 차원을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으로 확대하며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고 감사의 영역을 확장하게 한다.

2. 특별 은혜

(1) 특별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세상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베풀어지는 영역이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인식의 근거와 출발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 학문과 과학과 기술이 성령의 일반 은혜의 역사 안에서 발전한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써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물을 많이 퍼부어 주셔서 사람의 정신은 모든 지식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을 보여주었음을 본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제외되었다.”⁹⁵ 일반 은혜는 하나님에게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반 은혜를 받은 자들 역시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특별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 일반 은혜의 인식론적 근거와 출발점은 특별 은혜이다.

칼빈에게 은혜는 계시의 형태로써 먼저 나타난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행위인 것처럼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행위이다. 전자가 인간 내부와 외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⁹³ Marc Edouard Chenevière,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Genève: Slatkine Reprints, 1970), 60.

⁹⁴ Calvin, *IRC* II. ii. 16.

⁹⁵ Calvin, *Sermon 28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599.

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이다. 일반 계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은 특별 계시인 성경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한다.⁹⁶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인식은 자연적 이성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내적 사역에 근거한다. 한편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tesmoignage interieur du Saint Esprit)에 의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성을 가지며, 다른 한편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전자는 성경의 권위에 관한 성령의 사역이며 후자는 구원과 삶의 규범에 관한 성령의 사역이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소경과 같아서 성령에 의해 조명을 받을 때까지는 올바른 이해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힘 있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특별한 은혜로(par grâce spéciale)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없다.”⁹⁷ 칼빈에 따르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조명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 속에 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준다.⁹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비밀들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을 얻게 된다.⁹⁹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영혼 속에 새기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준다.¹⁰⁰

(2) 은혜 언약 : 율법과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

호크마(A. Hoekema)에 따르면 칼빈의 은혜 언약 교리는 그의 신학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¹⁰¹ 언약은 하나님의 결속으로서 피조물과 자신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킨다.¹⁰² 이 점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행위가

⁹⁶ Calvin, *Commentaire sur Psaume* 19,7.

⁹⁷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Hébreux* 8,11.

⁹⁸ Calvin, *Catéchisme de L'Eglise de Genève*, CO 6, 37.

⁹⁹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11,34.

¹⁰⁰ Calvin, *Catéchisme de L'Eglise de Genève*, CO 6, 37.

¹⁰¹ Anthony A. Hoekema, “Calvin’s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Reformed Review* 15(1962), 3.

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시어 자격 없는 죄인들을 백성과 자녀로 삼아 결속하신다. 칼빈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맺은 언약을 “은혜 언약”(alliance de grâce), “영적 언약”(alliance spirituelle), “자비 언약”(alliance de miséricorde), “생명 언약”(alliance de vie), “구원 언약”(alliance de salut) 등으로 불렀다.¹⁰³ 칼빈은 타락 이전 아담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도 행위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을 실행할 능력이 죄로 인해 전적으로 상실했기 때문이다.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구원의 방식과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결속인 언약은 구원을 가리키며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은혜임을 말한다. 다음은 구원 이후의 삶의 방식 또한 은혜임을 말한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가짐을 말하지만, 동시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산다는 것은 택한 받은 자의 의지가 무력화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되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믿음과 순종을 동반한다. 이를 오스터하벤(E. Osterhaven)은 “언약적 책임”(covenantal responsibility)이라 불렀다.¹⁰⁴ 마찬가지로 토드 빌링스(T. Billings)는 죄인인 인간이 언약을 이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모두 이행하는 일방적인 행위같이 보이지만, 칼빈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호적이며 쌍방향적인 언약 언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언약의 인간적 측면을 이루기 위해 신자가 진지하게 자발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빌링스에 의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언약을 시행하는 언약의 쌍방향적 특징이 중요하다.¹⁰⁵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나 모두 은혜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신약과 구약의 언약은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동일하다. 중보자 그리

¹⁰² Peter Lillback, A. *The Binding of God*, 원종천 역, 『칼빈의 언약 사상』(서울: CLC, 2009), 205.

¹⁰³ Calvin, *IRC* II. xi. 11; II. x. 15,20.

¹⁰⁴ M. Eugene Osterhaven, “Calvin on the Covenant”, *Reformed Review* 33 (1980), 140.

¹⁰⁵ Billings, “John Milbank’s Theology of the Gift and Calvin’s Theology of Grace: A Critical Comparison”, 92.

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 언약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동일한 교리를 받으며 동일한 믿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동일한 유일한 중보자를 신뢰하며, 동일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다.¹⁰⁶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는 없다. 율법에 비추어 온전하고 아무 흠 없을 만한 사람이 없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 율법은 구원을 가져다줄 수 없다.

칼빈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 후 430년이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다.¹⁰⁷ 은혜 언약은 복음에 앞서 율법 속에 들어있었다. 먼저는 율법에서 발견된 은혜이며, 다음으로 복음 안에서 발견된 은혜이다. 그렇다면 은혜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첫째, 실체 자체가 아닌 은혜의 전달 방식이다. “옛 조상들과 맺은 언약은 그 실체와 진실에 있어서 우리의 것과 너무도 같아 서로 동일하며, 다만 전달 방식(en l'ordre d'être dispensée)에서만 다를 뿐이다.”¹⁰⁸ 구약은 은혜 언약의 완성자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치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봄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됨을 가르친다.¹⁰⁹ 하지만 구약은 아동기의 경륜이기에 아동의 수준에 적응하여, 이 땅의 혜택을 통해 영원한 것을 맛보게 했다면, 신약은 성숙한 경륜, 곧 육체로 오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관상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지상의 혜택을 통해 영원한 것을 맛보게 하는 수준 낮은 훈련 방식을 벗게 했다.¹¹⁰ 게다가 똑같은 것을 보여주지만, 구약은 형상과 그림자를 통해서 신약은 실체 자체로 보여준다.

둘째, 은혜의 분량이다. “그들이 증거한 그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놓여 있다.

¹⁰⁶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Galates* 4,1

¹⁰⁷ Calvin, *IRC* III. xi. 20.

¹⁰⁸ Calvin, *IRC* II. x. 2.

¹⁰⁹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9,25.

¹¹⁰ Calvin, *IRC* II. xi. 1-2.

그들은 조금 맛보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더욱 풍성히 그것을 맛보고 있다.”¹¹¹ 구약은 율법을 본 것이며 신약은 율법이 밝히 나타난 것을 본 것이다. “복음은 구원의 다른 방법을 제시할 만큼 율법 전체를 폐기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복음은 율법이 약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확증하고 만족시켰으며 그림자에 실체를 제시했다.(...) 율법 전체를 볼 때 복음은 그 현현의 명확성에 있어서만 율법과 차이가 있을 뿐이다.”¹¹²

셋째, 은혜를 받는 대상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에서는 구별된 한 민족에게,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 시대부터는 모든 민족과 관계한다.¹¹³ 전자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그들 전체가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에 따라서 자기가 기뻐하는 자들을 택하시기 때문이다. 이를 오스터하벤(Osterhaven)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생명의 언약을 맺은 것은 외적 부르심이며 그 안에서 따로 택한 사람은 비밀스러운 선택이라고 불렀다.¹¹⁴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있어서, 은혜 언약은 동일하지만, 그 영적 수준에 따라 취급했음에 대해서 농부가 겨울에 일하는 것과 여름에 일하는 것이 다르며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대할 때와 청년이 됐을 때, 지도 방식이 다른 것으로 비유했다.¹¹⁵

IV. 은혜와 윤리

1. 이중 은혜

111 Calvin, *IRC* II. ix. 1.

112 Calvin, *IRC* II. ix. 4.

113 Calvin, *IRC* II. xi. 11.

114 Osterhaven, “Calvin on the Covenant”, 139.

115 Calvin, *IRC* II. xi. 13.

칼빈에게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다. 이 구원 행위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 전체를 포괄한다. 은혜는 영혼에 주입된 어떤 성질이나 능력이 아니다. 은혜가 덕이 되어 공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은 은혜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혜가 공허한 개념이나 단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효과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은혜를 효과적으로 받는다고 말하였다.¹¹⁶ 은혜란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이며 이제 신자 안에 있게 되는데, 이는 은혜의 효과로 나타난다.

은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온갖 종류의 복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을 주시는 것도 은혜요, 구원의 길에서 진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온갖 필요한 것들도 은혜이다.¹¹⁷ 칼빈은 은혜 언약이 유익을 주려면,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이 앞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중 기독교인과 관계된 핵심적인 은혜를 이중 은혜라 칭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이중 은혜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주로 이중 은혜를 받는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하늘에서 심판자 대신 은혜로운 아버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성화됨으로써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삶을 연마할 수 있다.”¹¹⁸

“우리는 은혜라는 말도 구속의 두 부분,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키기는 죄 사하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¹¹⁹

전자를 칭의의 은혜, 후자를 성화의 은혜라 부른다. 칭의는 죄의 용서와 하나

116 Calvin, *Commentaire sur Genèse* 17,7.

117 Calvin,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7.

118 Calvin, *IRC* III. xi. 1.

119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6,14.

남과의 화해로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순수한 은혜이다.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다.¹²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받아 주신다.

칼빈에 따르면 칭의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는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¹²¹ 이중 은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처럼, 두 개의 은혜는 동시에 주어진다. 이 점에서 칼빈은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화의 은혜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칭의만 있고 성화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같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고 새 생명 또는 새 삶과는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갈기갈기 찢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¹²²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직 믿음으로만 값없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이 은혜들, 곧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는 끈(lien inséparable)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이것을 강제로 분리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¹²³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결합한다. 성령의 은혜는 영혼의 저속하거나 육적인 부분을 교정하는 것뿐만

120 Calvin, *IRC* III. xi. 2.

121 Calvin, *IRC* III. xi. 11.

122 Calvin,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6,1.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확실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절름발이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둘로 찢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Commentaire sur l'épître aux Romains* 8,13.

123 Calvin, *Commentaire sur la première épître aux Corinthiens* 1,30.

아니라, 영혼의 모든 부분의 완전한 개혁을 포함한다. 성화는 칭의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은혜의 영역이다.¹²⁴ 하지만 칭의와 달리 성화의 은혜는 인간 본성과 의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여 인격과 삶을 통해 거룩함이 나타나게 한다. 칭의는 우리 안 본성의 변화와 관계없이 밖에서 행해지는 은혜라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본성을 변화시키는 은혜이다. 칭의가 인격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성화는 인격의 성품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 둘 다 동시에 영향을 끼친다.

2. 은혜의 윤리

칼빈에게 구원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창조 시 좋았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하는 것이다. 은혜의 목적은 타락하여 전복된 인간 본성을 고쳐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이는 자신 스스로가 자율성과 삶의 준거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관계성 안에서 삶이 세워지는 것이다. 곧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삶의 준거점이 된다.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의존하며 따름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사는 것, 곧 은혜의 윤리이다.

은혜 언약의 본질은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무상으로 주어지는 데 있다. 값없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자신에게 직접 선물로 답할 수 없음을 말한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이다. 칼빈은 은혜를 보답하려는 행위의 위험성을 간파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천주교의 미사에서 행해지는 성체성사이다. 성찬은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신자에게 성찬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영적으로 교통하며 영생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례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은혜 언약의 증거이며

124 진지훈, “칼빈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 『갱신과 부흥』 제21호(2018), 85.

확증이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서 은혜의 구원을 의식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하지만 천주교의 성찬식은 은혜를 돌려드리려 한다. 은혜를 갚으려 한다.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것은 감사함과 함께 취하고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의 지불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보속으로 그것을 받는 것이라 상상한다. (개신교) 성찬의 성례와 (천주교) 제사의 차이는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서 말해질 수 있는 것만큼 서로 다르다. 실로 사람의 매우 불행한 배은망덕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베푸심이 인정되고 감사가 드려져야 할 그때 오히려 그 일로 하나님을 자신의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다.”¹²⁵

텍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칼빈이 주장하는 성찬 성례는 받는 것(*prendre*)이며, 천주교의 성체성사는 주는 것(*donner*)이다. 모든 선물에 대해서 사람은 둘 중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받거나 다른 선물로 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칼빈은 하나님에게 은혜의 선물을 받고 단지 감사를 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선물로 돌려드릴 수 없음을 밝힌다.¹²⁶ 그는 당시 가톨릭 신학의 핵심에서 발견된 호혜성의 개념을 비판한다.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하나님께 의무로서 돌려드려야 한다는 가톨릭교회의 체계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공로가 된다고 가르쳤다. 이를 칼빈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없는 무상성의 개념으로 변경하면서 그러한 체계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¹²⁷ 칼빈에게 경건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다. 게리쉬(B. A. Gerrish)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 베푸심과 그분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는 것은 칼빈 성찬 신학의 핵심 주제일 뿐 아니라, 칼빈 신학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정당하게 말했다.¹²⁸

125 Calvin, *IRC* IV. xviii. 7.

126 Karl Barth, *La confession de foi de l'Eglise : explication du symbole des apôtres d'après le catéchisme de Calvin* (Neuchâtel: Delachaux & Niestlé, 1946), 31.

127 Natalie Zemon Davis, *The Gift in sixteenth-century France*,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1989), 199.

율리비에 아벨(O. Abel)은 이러한 호혜성으로서의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구원에 대한 걱정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무걱정”(insouci)을 강조했다.¹²⁹ 걱정은 자기 자신의 구원이 아닌, 어떻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느냐에 향해야 한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 시작될 뿐 아니라, 그것으로써 계속되고 완성된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 가치, 선행은 배제된다. 구원에 대한 공로를 하나님께 부분만 돌리고서, 충분치 못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협력한다는 사상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이 마땅히 돌려드려야 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¹³⁰

그렇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윤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삶과 윤리의 근거는 어디에 세워지는가? 칼빈은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발견한다. 그 무상의 은혜가 삶을 통해 역사한다.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상의 은혜에 대한 신앙이며 감사이며 고백이다. 마이클 호튼(M. Horton)은 “우리는 하나님께 오직 믿음만을 가져가고 우리의 이웃에게는 선행을 가져간다”라고 말했다.¹³¹ 나탈리 제먼 데이비스(N. Z. Davis)가 말한 것처럼, 선물의 흐름은 주님으로부터 곧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선물을 받은 자에게서 외부로 흐른다.¹³² 모든 선한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며 단지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하나님께 직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자신 안에 돌려드릴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은혜에 감사하여 선행으로 이웃에게 돌리는 것이다.¹³³ 이 역시 갚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것이다. 동력은 성찬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성찬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령에 의해 현존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웃 사랑의 동력을 얻게

128 B. A. Gerrish, *Grace and Gratitude :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 T&T Clark, 1993), 19-20.

129 Olivier Abel, “Pourquoi Calvin, aujourd’hui?”, *Etudes* 410(2009), 648.

130 Calvin, *Sermon 11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375-76.

131 Michael Horton,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Glorifying and Enjoying God Forever*, 김광남 역,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서울: 아바서원, 2016), 362.

132 Davis, 『선물의 역사』, 205.

133 Horton,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362.

한다.¹³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한편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에서 이웃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다. 감사의 제사는 이웃에게 사랑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이며, 선을 행하며 나눠주는 것이다.¹³⁵ 윤리는 칭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실존임을 증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윤리는 부족한 구원을 완성하는 차원에서가 아닌,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이웃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웃의 범주는 모든 사람이다. 사람이라면 모두 이웃이다. 온 인류는 하나의 거룩한 유대로 묶여 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으셔서 서로를 돕게 하셨기 때문에, 친분이 없는 사람도 이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우리의 이웃은 혈육들이나 친구들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¹³⁶

“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의 감정으로 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헬라인인지 야만인인지를 차별하지 않고, 가치 있는지 없는지 개의치 않고, 친구인지 원수인지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들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¹³⁷

이웃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면 그 이웃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칼빈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나주신 것을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134 Todd J. Billings,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김요한 역, 『그리스도와의 연합』(서울: CLC, 2011), 235.

135 Calvin, *IRC* IV. xviii. 16.

136 Calvin, *Commentaire sur l'Évangile de Luc* 10.30.

137 Calvin, *IRC* II. viii. 55.

택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타고난 본성과 성품은 부패 이외에 찾아볼 것이 없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선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킨 역사의 결과이다.¹³⁸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서(자세히) 본다면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들여다 보면 흠만 보인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가까이서 흠을 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한다.¹³⁹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선을 베풀라고 명하시는데, 사실 대부분 사람은 그들 자신의 가치에 따라 평가받으면 선행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성경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람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것 때문에 우리는 존대와 사랑의 의무를 갖는다-을 고려해야 한다고 훈계한다.(...) 만일 그는 멸시받을 정도로 무가치하다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그에게 반사함으로써 그를 높여 주었다고 증명하고 반박하신다.”¹⁴⁰

어떤 사람에 대해 그는 선(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긴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너의 합당한 자격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칼빈은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 선물을 줄 때의 감정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윤리(나눔, 베품, 선행)는 의무의 문제를 넘어서, 이웃에게 향하는 좋은 감정과 이웃이 받는 좋은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선의 의무를 다하면서 거만한 표정과 오만한 말투를 하고 있다면, 선물을 주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 “모든 은혜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친절하게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고 위탁하신 것이다.”¹⁴¹ 선물을 줄 때는 진정한 사랑의 감정으로 행해야 한다. “마치 그들이 느끼고

¹³⁸ Calvin, *Sermon 11e sur l'épître aux Ephésiens*, CO 51, 376.

¹³⁹ Calvin, *IRC* III. vii. 6.

¹⁴⁰ Calvin, *IRC* III. vii. 6.

¹⁴¹ Calvin, *IRC* III. vii. 5.

견디듯이 그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며, 마치 자신들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긍휼의 감정으로 그를 도와야 한다.”¹⁴² 마지막으로 칼빈은 우리의 선물은 우리의 능력이 다할 때만 멈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두 번의 의무 실행으로 선물 베풀기를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속해서 부여되는 것처럼, 그러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이웃에게 빛을 지고 있다.

칼빈에게서 윤리는 은혜의 윤리이다. 윤리의 동력이 항상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다. “선을 행하려는 것은 은혜에 속하다.”¹⁴³ “은혜만이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¹⁴⁴ “은혜는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가지도록 미리 앞서서 역사하시며 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이 의지하지 않도록 그 뒤를 따른다.”¹⁴⁵ “분명히 성도들의 의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아 생겨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원하므로 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므로 그들이 원하게 되는 것이다.”¹⁴⁶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떠난다면 구원도, 윤리도 없다.

V. 나가는 말

칼빈이 말하는 은혜는 자기 신앙 입맛에 맞게 사용하는 공허한 표현이 아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삶의 변화 없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시되는 것도 아니다. 칼빈이 강조하는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며, 인간 편에서 그것을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칼빈의 은혜론은 공로를 제거하고, 칭의론과 함께 간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 은혜는 믿음으로써 파악하기에, 은혜의 인식론적 근거는 믿음이다.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계시되고

¹⁴² Calvin, *IRC* III. vii. 7.

¹⁴³ Calvin, *IRC* II. iii. 5.

¹⁴⁴ Calvin, *IRC* II. iii. 13.

¹⁴⁵ Calvin, *IRC* II. iii. 12.

¹⁴⁶ Calvin, *IRC* II. iii. 13.

나타난다. 모든 은혜는 성부로부터 시작되며, 성자는 은혜의 내용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적용한다. 곧, 성령은 신적 은혜를 현재화시킨다. 칼빈은 은혜의 개념을 세분하여 작동 은혜와 협력 은혜, 현실 은혜와 상존 은혜 등의 구별을 거부했다. 은혜는 처음만 주어지고 중단되거나, 사람의 행위로 대체되지 않으며 삶이 헛되지 않도록 후속적으로 따라간다. 은혜는 무매개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성례전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단이며 은혜를 받는 원인은 아니다. 은혜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데 있다. 교회의 직분은 은혜의 직분이다. 주께서는 소명을 주셔서 직분자를 세우고, 은혜를 주셔서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한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일반 은혜와 택한 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특별 은혜로 구별된다. 일반 은혜는 일반 계시를 있게 하며, 죄의 파괴력을 막고, 세상을 보존하며, 교회와 세상의 이원론적 구별을 반대하며, 특별 은혜가 베풀어지는 외적 토대를 형성한다. 일반 은혜론에 대한 강조는 교회 밖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활동 역시 은혜의 활동으로 여기게 하며, 세상 문화나 문명을 적대하기보다는 거기에 참여하여 더욱더 변화시키는 사역에 참여하게 한다. 특별 은혜는 특별 계시를 있게 한다. 특별 계시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약된다. 성경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로 구별하지만,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원의 길은 은혜 언약만 존재한다. 은혜 언약은 먼저는 율법 안에서, 후에는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 전자는 후자를 지향하고 후자의 빛에서 해석된다. 동일한 은혜 언약이지만 그 은혜의 전달방식(이 땅의 혜택의 유무), 은혜의 분량(현현의 명확성의 차이), 은혜의 대상(한 민족과 모든 민족)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한다.

칼빈이 주장하는 은혜는 효과적이며 활동적이다. 대표적인 구원 은혜는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이다.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지만 분리될 수 없다. 하나님이 성화를 시키지 않을 사람은 칭의를 시키지 않는다. 칭의는 본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외적으로 주어지며 성화는 본성의 변화를 동반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외적, 내적 측면에 동시에 영향을 준다. 구원은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며,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없다.

대신 하나님께는 감사하며(감사의 제물이 됨으로써) 이웃에게는 선물로 돌려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받는다. 가까이 가서 흠을 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 선행으로 나타나는 이웃에게 향하는 선물은 의무의 문제를 넘어, 좋은 감정을 동반하는 실천이다. 이것은 한 번의 실천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이웃에게 빛을 지고 있는 것이다. 칼빈에게 윤리는 은혜의 윤리이다. 자신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의 활동이며 열매일 뿐이다.

[참고문헌]

- Abel, Olivier. "Pourquoi Calvin, aujourd'hui?". *Etudes* 410(2009), 639-49.
- Aquinas, Thomas. *Aquinas on Nature and Grace: Selections from the Summa Theologia*. 손은실·박형국 역. 『신학대전: 자연과 은혜에 관한 주요 문제들』.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Augustine, Aurelius. *Saint Augustine: Anti-Pelagian Writings*. 차종순 역. 『은혜론 4』.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 Barclay, John M. G. *Paul and the Gift*. 송일 역. 『바울과 선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 Barth, Karl. *La confession de foi de l'Eglise : explication du symbole des apôtres d'après le catéchisme de Calvin*. Neuchâtel: Delachaux & Niestlé, 1946.
- Billings, Todd J. "John Milbank's Theology of the Gift and Calvin's Theology of Grace: A Critical Comparison". *Modern Theology* 21-1(2005), 87-105.
- _____. *Union with Christ: Reframing Theology and Ministry for the Church*. 김요한 역. 『그리스도와의 연합』. 서울: CLC, 2014.
- _____. *Calvin, Participation, and the Gift*. 송용원 역. 『칼뱅, 참여, 그리고 선물』. 서울: 이레서원, 2021.
- Calvin, Jean. *Ioh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59 vols. Ed. by G. Baum. E. Cunitz. E. Reuss. Brunswick: Schwetschke et Filium, 1863-1900.
- _____. *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1560. 4 vols. Ed. by Jean Daniel Benoît. Paris: Vrin, 1957-1963.
- _____. *Commentaires sur le Nouveau Testament* 4 vols. Toulouse: Société des Livres Religieux, 1892-1894.
- _____. *Sermons sur la Genèse. Chapitres 1,1-11,4 Supplementa Calviniana XI*. éd. M. Engammare.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Chenevière, Marc Edouard.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Genève: Slatkine Reprints, 1970.
- Choisy, Eugène. "Calvin's Conception of Grace". *The Doctrine of Grace*. Edited by W. T. Whitley. London: Student Christian Movement Press, 1932.
- Davis, Natalie Zemon. *The Gift in sixteenth-century France*. 김복미 역. 『선물의 역사』. 서울: 서해문집, 1989.
- Doumergue, Emile. *Jean Calvin :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IV, la pensée religieuse de Calvin*. Lausanne: Georges Bridel & Cie Editeurs, 1910.
- Gerrish, B. A. *Grace and Gratitude : The Eucharistic Theology of John Calvin*. Edinburgh: T&T Clark, 1993.
- Hoekema, A. Anthony. "Calvin's Doctrine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Reformed Review* 15(1962), 1-12.
- Horton, Michael.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역.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2.
- _____. *Calvin on the Christian Life: Glorifying and Enjoying God Forever*. 김광남 역. 『칼뱅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아바서원, 2016.
- Keller, Carl-A. *Calvin mystique*. Genève: Labor et fides, 2001.
- Krusche, Werner. *Das Wirken des Heiligen Geistes nach Calvin*. 정일권 역. 『칼빈의 성령론』. 서울: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2017.
- Lecerf, Auguste. *Introduction à la dogmatique réformée*. Aix-en-Provence: Edition Kerygma, 1998.
- Lillback, Peter A. *The Binding of God*. 원종천 역. 『칼빈의 언약 사상』. 서울: CLC, 2009.
- Lonergan, Bernard J. F. *Grace and Freedom*. 김울 역. 『은총과 자유』.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3.
- McGrath, Alister. *Iustitia Dei: A History of the Christian Doctrine of Justification*. 한성진 역. 『하나님의 칭의론』. 서울: CLC, 2008.

- Meeter, Henry H.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박윤선·김진홍 역. 『칼빈주의 기본 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6.
- Muller, Richard. *The Divine Essence and Attributes*. 김용훈 역.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4.
- Neeser, Maurice. *Le Dieu de Calvin d'après l'Institution de la religion chrétienne*. Neuchatel: Université de Neuchatel, 1956.
- Osterhaven, M. Eugene. "Calvin on the Covenant". *Reformed Review* 33(1980), 136-49.
- Wendel, François. *Calvin: sources et évolution de la pensée religieus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0.
- 박재은. "칭의의 6중 원인에 대한 알렉산더 쾰리와 존 칼빈의 연속성, 불연속성, 그리고 신학적 함의". 「갱신과 부흥」 제20권(2017), 39-76.
- 송용원. "칼뱅의 선물 사상에 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115권(2020), 209-237.
- 진지훈. "칼빈의 성경 주석을 통해서 본 교회의 본질에 대한 칼빈의 이해". 「갱신과 부흥」 제21호(2018), 78-115.

[Abstract]**Calvin's Doctrine of Grace**

Sun Kwon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visiting professor,
Systematic Theology)

This article is a study of Calvin's doctrine of grace. Grace is an act of God's love for his children. The Reformation claimed sola fides and sola gratia. Calvin's concept of Grace relates to the saving action of the Triune Go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llows us to become members of Christ, to be under Christ, and to possess Christ. If God has started the work of grace, he will hold it with grace until the end. While the general grac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 is universally given to all without distinction, the grace of salvation is given only to those who are elect. Those who participate in this special grace shall also serve for the glory of God in the realm of general grace. God's redemptive grace extends to his sovereign grace. The New Testament and the Old Testament are the same in the substance of the covenant of grace. Doctrine, faith, mediator, God, holy Spirit are all the same. In the way of salvation, those who are bound with God through the covenant of grace have a covenantal responsibility. As double grace,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are distinct but inseparable. Ethics is the ethics of grace. If there is something good within oneself, it is an activity of grace and a its fruit.

Key Words: general grace, special grace, covenant of grace, double grace, ethics of grace, gift

